

제목: 빅토리아 선발대가 알려주는 꿀팁

[권혜성]

간호학과 202320313, 강원대학교

이메일: comet0215@kangwon.ac.kr

2024학년도 여름학기 캐나다 빅토리아대학 단기해외어학연수 참가 후기

키워드: #빅토리아#캐나다#밴쿠버여행#UVIC#선발대꿀팁

고등학생때부터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 휴학, 이민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캐나다가 이민을 다른 국가에 비해 쉽고 생활환경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살에는 꼭 캐나다를 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코로나로 인해 모든 하늘 길이 닫혀 시간이 흐르던 중 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캐나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캐나다를 마음에 품고 살았더니 출국을 위해 공항을 가던 날부터 연수가 끝난 지금도 아직 꿈만 같습니다. 오랜 시간 바라던 캐나다서여 그런지 저의 행운은 비행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시애틀에서 빅토리아로 경유하는 항공편을 탔었습니다. 먼저 시애틀행에서 조던을 만났습니다. 조던은 현재 평택에서 미군으로 근무 중이며 고향을 가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조던과 10시간 정도 되는 비행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다보니 금방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경유 비행기를 타려고 수속을 밟던 중 너무 시간이 지체되어 30분 정도 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고, 가방 검사하는 줄이 길어 공항 직원에게 앞으로 갈 수 있는지 물었지만 안된다는 말을 듣고 비행기를 놓치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맨 뒤로 줄을 스러 가던 중에 조던을 다시 만나 상황 설명을 했더니 조던이 도와주어 10분을 남기고 비행기 탑승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조던이 저의 캐나다 생활에 첫번째 행운이었습니다. 경유한 비행기에서 만난 옆자리 아주머니도 친절하게 짐을 어디서 찾는지 어디서 입국심사를 받는지 다 알려주셨고 이후 학교로 이동하는 파키스탄계 캐네디언 택시운전사 아저씨도 캐나다에 있는 동안 많은 추억 쌓으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캐나다에 대해 많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캐나다 첫날부터 많은 행운들이 저를 반겨주었고 앞으로의 한달이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빅토리아 대학은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정도의 정말 큰 사이즈의 캠퍼스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캠퍼스 산책을 하면 사슴, 청설모, 토끼를 쉽게 볼 수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어 아침에 라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스틱 마켓이 있는 건물 지하에 자전거를 렌트해주는 곳이 있어서 자전거를 빌려 나중에는 저도 아침에 라이딩을 하거나 오후에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바다를 갔었습니다. 자전거 렌트는 한달에 100달러인데 자전거를 반납하면 50달러를 돌려줍니다. 자전거를 렌트 해주시던 분도 정말 유쾌하신 분이셔서 저한테 '나중에 너가 반납하러 왔을 때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볼게~'라고 하면서 있는 기간동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라고 해주시는 등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다음 기수 학생들한테 자전거를 렌트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학교 근처 바다)



학교에서 산책하면 쉽게 볼 수 있는 사슴입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레벨 테스트와 간단한 OT와 CA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A는 빅토리아 대학에서 영어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현지 학생들로 이루어진 서포터즈입니다. CA들에게 맛집, 카페, 정보, 도움 등을 요청하면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고, 방과 후 액티비티를 함께 다니면서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캐나다인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서 CA한테 물었을 때 학교 여름방학 동아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캐나다를 한국 대학과 다르게 정말 다양하고 한국에는 없는 신기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치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아리, 레드불 플래그 레이싱 동아리 등등이 있었습니다. 봉사 동아리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가 위주인 한국과는 다르게 정말 자신들이 관심이 있고 함께 즐기고 싶어하는 것이 한국의 동아리 문화와 많이 다른 거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 중 몇몇 동아리에 이메일을 보냈고 한 곳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OT 및 CA 소개

제가 신청한 동아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고 다음 날 유니온 빌딩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당일 일이 생겨 참여는 못 했지만 다음 기수 친구들 또는 장기 연수를 가는 친구들에게는 무조건 CA에게 물어보든지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서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밖에도 저는 최대한 외국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고 좀 더 영어만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짧은 시간 조금이라도 영어를 더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인 친구들보다는 일본, 중국, CA 등에게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

치안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캐나다의 치안은 안전하면서 위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홈리스,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반면 사람들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다음 날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홈리스들은 거의 다 마약 중독자였던 거 같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주사기를 실제로 봤었고, 타 학교에서 온 친구는 밴쿠버 버스 의자 사이에서 포장지 안 뜯어져 있는 주사기를 보기도 했습니다. 밴쿠버는 정말 빅토리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이든 밤이든 홈리스도 많고 거리가 지저분했습니다. 한 번은 점심에 가스타운을 갔었는데 홈리스한테 CPR을 하는 모습도 보았고 하루에 한 번씩은 경찰차나 앰불런스 등이 출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밴쿠버에 비하면 홈리스나 마약 중독자는 적지만 그래도 많은 홈리스들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홈리스들이 많아서 소매치기 같은 범죄도 심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잘 찾아줍니다. 한 번은 같이 간 동생이 밴쿠버 여행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버스에 두고 내린 거 같으면서 못 찾을 거 같다고 많은 걱정을 했었지만, 다음 날 버스에 전화해 보니 분실물로 들어왔다고 찾으러 오라고 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대학에서 온 친구는 빅토리아 다운타운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 똑같이 다음 날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홈리스들이 많은 거 비해 물건이나 소매치기 같은 범죄는 거의 없어서 저녁만 아니면 안전했던 거 같습니다.

수업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수업은 일반 어학원과 같이 문법, 스피킹, 라이팅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영어 수업보다는 수업 이후에 진행되는 방과 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방과 후 활동은 수업이 끝나면 담당 CA가 교실에 들어와서 오늘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줍니다. 가끔은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 보다 친구들끼리 다운타운 것도 재미있지만 꼭 학교에서 가는 프로그램들 중에 추천하는 것은 시드니 여행, 성 방문, 톨미산 산책을 꼭 추천드립니다. 특히 시드니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무조건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드니를 가게 되면 무조건 시드니 베이커리에 가서 꼭 레드벨벳 크림치즈 케이크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원래는 도넛이 유명한 빵집이지만 도넛은 메이플 존이라는 도넛을 추천하고 외에 다른 케이크나 타르트 같은 베이커리도 맛있으니 친구들이랑 여러가지 사서 나눠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드니 베이커리 외에도 시드니 거리 자체가 너무 이뻐서 정말 외국 영화에 나오는 거리 같은 느낌이 들고 학교 근처 바다보다 훨씬 물이 깨끗합니다.



시드니 베이커리



레드벨벳 크림치즈 케이크 완전 추천



가끔 학교 방과 후 활동 말고 따로 친구랑 다녔던 곳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은 오크베이 나이트 마켓입니다. 오크베이 나이트 마켓은 오크베이에서 한달에 한 번만 열리는 야시장입니다. 이름은 야시장이지만 아시아에서 열리는 그런 야시장 느낌은 아니고 한국의 약간 플리마켓 같은 느낌의 장입니다. 또한 밤 늦게 까지는 안 하고 8시 30분까지만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야시장을 생각하고 간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크베이 나이트 마켓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한달에 한 번만 열려서 캐나다에서 지내는 김에 가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마켓을 가면 마트에서 절대 살 수 없는 현지인들이 만든 쿠키, 사이다(술), 메이플 시럽 등을 살 수 있습니다.



오크베이 야시장



오크베이에 있는 프랑스 레스토랑 Vis-a-Vis



오크 베이 베이커리 카페
Ottavio Italian Bakery

여기서 저는 메이플 시럽이랑 사이다를 기념품으로 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사고 싶었던 메이플 시럽이 솔드아웃이라서 못 샀지만 시식을 했을 때 정말 맛있었고 시럽 병도 마트나 기념품 샵에서 파는 병이 아니라 더 이쁜 모양의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메이플 시럽을 재배해서 파는 분이 자기 농장에서 직접 만들어서 파는 수제라는 점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만약에 메이플 시럽을 사게 된다면 기념품 가게에서는 사지 말고 꼭 마트에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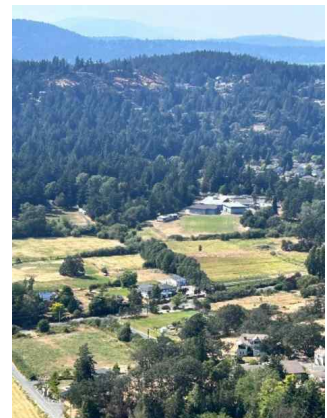
사이다는 약간 한국의 과실주 같은 느낌에 전통주 느낌처럼 팔고 있었습니다. 한 병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술을 좋아한다면 한국에는 없는 다양한 맛의 과실주를 맛볼 수 있고 맛도 좋아서 한 병 정도는 사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사진의 프랑스 음식 레스토랑은 오크 베이에 생각보다 갈만한 식당이 없어서 평점이 높은 곳을 갔었습니다. 음식, 분위기는 좋았지만 가격대가 좀 있어서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가는 것도 괜찮지만 꼭 가서 먹어볼 정도는 아닙니다. 마지막 사진은 우연히 들어간 현지 베이커리인데 저는 오크베이를 간다면 여기는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젤라또가 다운타운이나 다른 가게들보다 저렴한데 정말 수제 같은 느낌이고 너무 맛있어서 좋았고 옆에는 작은 그로서리마켓처럼 다양한 식료품들과 치즈들을 팔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외에도 빅토리아에 saxe point, 마운틴 더글라스를 한 번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Saxe point는 다운타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석양이 질 때 가면 정말 너무 예쁜 노을을 볼 수 있고 다른 바다들 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친구가 찾아서 따라 갔었는데 주택가에 있어서 현지인들만 있는 로컬 석양 맛집이었습니다. 노을을 보러 많은 현지인들이 반려견이나 친구들과 돛자리를 깔고 음악을 틀면서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더글라스 마운틴은 정상에 올라가면 시애틀과 빅토리아 섬이 한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등산로가 조금은 힘들지만 한국의 조금 높은 뒷동산 느낌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 한국에서는 느낄 수 없는 뭔가 신비한 느낌을 받았고 독수리도 봤습니다. 그리고 한적해서 사진 찍고 풍경을 감상하기 좋은 거 같습니다.



빅토리아가 그렇게 역사가 긴 곳은 아니라서 전통음식이라고 할만한 음식은 없었지만 제가 맛있게 먹었던 식당을 몇 군데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타코 피노라는 타코 레스토랑입니다. 현지인이 가장 많았던 식당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에 있으면서 유일하게 2번 갔던 식당이고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는 말만 했던 식당입니다. 가면 무조건 치킨이랑 스테이크 타코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아에 늦게까지 하는 식당이 많지 않은데 타코 피노는 늦게까지 영업하기도 하고 여기 먹었던 다른 외국 학생들도 다 맛있다고 했어서 코브에서 밥 먹기 싫거나 다운타운 가시면 한 번은 꼭 가시길 추천합니다.



코지플레이스라는 중식당입니다. 다운타운에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지만 중국인 부부 둘이서 운영을 해서 음식 나오는 속도나 회전율은 조금 느리지만 그만큼 맛 하나는 정말 좋아서 만약 현지에 좀 더 길게 있었다면 무조건 한 번 더 갔을 거 같은 식당 중 하나입니다. 저는 둘이서 갔는데 가능하면 여러 명에서 가서 다양한 메뉴 시켜서 나눠 먹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사진은 양고기 볶음입니다.



아라시라멘

작년에 갔다온 친구와 CA중에 스펀서가 추천한 현지인 맛집입니다. 가격이 조금은 있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고 현지인 맛집답게 러쉬 타임에 가면 웨이팅이 조금은 있습니다.

차슈에서 냄새도 안 나고 맛있지만 굳이 2번 갈 정도는 아닌 거 같지만 한 번은 꼭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JAM Cafe

솔직히 엄청나게 맛있고 완전 추천은 아니지만 캐나다에 왔으니 한번은 가야하는 그런 브런치 카페입니다. 체인점이라서 빅토리아 밴쿠버 다 매장이 있고, 브런치 카페라서 문은 3시면 닫아서 저는 2시쯤에 방문을 해서 웨이팅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빅토리아나 밴쿠버나 웨이팅이 많아서 먹기 힘들다고 했었고, 실제로 다른 친구는 밴쿠버에서 웨이팅 하다가 너무 길어서 포기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고 카페 분위기는 빈티지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인스타용으로 한 번만 가세요~



Finest At Sea Seafood Market and Food Truck

진짜 피쉬앤칩스를 먹어보고 싶다면 여기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출국 전날 처음 먹어봤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있고 한국의 생선가스와는 차원이 다른 맛입니다. 여기도 현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돛자리를 빌릴 수 있어서 음식 받고 앞에 있는 피셔맨 공원에서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앞이 피셔맨와퍼라서 소화시킬 겸 산책하기 딱 좋고 이뻐서 눈도 호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완전 추천!



Devil's Elbow Ale and Smoke House 밴쿠버

밴쿠버에 생각보다 엄청난 맛집은 없어서 놀라갔을 때 뭐 먹지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술을 즐기시면 여기서 다양한 종류를 술과 함께 훈제 스테이크 먹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게 분위기, 음식 등 다 괜찮은 곳입니다. 한국의 돈스파이크 식당이랑 가장 유사한 거 같습니다. 양도 많고 고기가 질기거나 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고 가격대비 괜찮아서 밴쿠버에서 갈 곳이 없으면 여기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수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최대한 외국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한국인과는 멀리 지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같은 학교 같은 캠퍼스 같은 과가 아닌 이상 한국을 돌아오면 대부분 안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외국인들과 놀면서 영어를 조금이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아가 버스가 잘 되어 있지만 가끔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때가 있고, 워낙 풍경이 이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꼭 영화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자전거 렌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에도 한 달 동안은 잠을 조금만 줄이셔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고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최대한 많이 이용하셔서 학비가 아깝지 않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